



GP Indonesia 김 화 수 선교사

☞.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

샬롬 ~

어느덧 8월이 저물어 가는 길목에 서서 분주함을 내려 놓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묵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과 생각속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오직 그 걸음을 지도하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삶의 전 영역을 통해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자연재해, 재정위기, 정치적 상황등으로 요동치는 세상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해가는 그림고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저의 감사와 그리움을 전하며 이곳 소식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

경제 성장율 5%를 넘기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높은 물가와 취업의 어려움, 고환율 등이 서민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고 있고, 또한 현 프라보워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을 하느라 부족한 비용을 복지부 및 교육부, 종교성등 정부 산하 각 부처예산을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각 정부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 정부 산하 공무원들을 포함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대학생들의 데모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집 ~

은혜의 집 아이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온지 26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교지에서 36 년 삶을 보내는 동안 절반이상을 각양각색의 배경과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 공동체안에 거하시며 저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떡함을 보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은혜의 집 식구들을 친히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심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안에서 그레이스, 글로리아, 레스파리 등 3 명의 베이비들도 예쁘게 자라 어느덧 두살, 두살 반이 되었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은혜의 집 식구들에게 웃음 꽃을 선사하고 기쁨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복덩이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와 반항기를 지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돌보며 때때로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 올때면 저는 이 사랑스런 베이비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맑고 빛나는 눈동자, 해맑은 미소를 찾아 그 꼬맹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빛나는 보배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셨는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오웬'이라는 아이가 은혜의 집에 들어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다른 고아원에 있다 여러 사정이 있어 은혜의 집으로 오게 된 아이입니다. 도착하여 하루가 지난 다음 날부터 맑게 웃으며 다른 아이들과 섞여 놀고 공부도 하는 오웬의 밝고 착한 심성이 돋보여 은근 마음이 놓였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며 주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 가고자 합니다.

대학 졸업반인 마헤르가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치고 11월에 있을 졸업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열심히 노력하는 마헤르는 은혜의 집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대학생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매일 아침이면 차를 운전하여 은혜의 집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들을 일일이 학교에 데려다 준 후에야 자기 학교에 가는, 또한 그동안 제가 해오던 정부부처 및 교회들과 관련된 서류와 행정일을 분담하여 담당해 주던 제게는 너무 고맙고 많은 도움을 주는 아이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은 남아 있지만 우선 이번 10월부터 반동 운빠르(Unpar)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면서 교회사역도 열심히신 나단교수님의 건축사무소에 출근하여 토목 엔지니어로서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9월 한달은 은혜의 집과 선교관 등 보수 수리해야 할 부분들을 리베와 함께 열심히 끝내고, 10월부터 그 건축 사무소에 출근하게 되는데 요즘같이 직장 찾기도 어려운 시기에 대학공부를 마치자마자 출근하여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준 아이를 향한 대견한 마음도 큼니다. 이제 다 성장하여 독립해야 하는 마헤르의 은혜의 집 울타리 밖에서의 삶을 응원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사회로 떠나 보내며 어쩔 수 없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상실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향한 나의 손을 내려 놓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온전히 맡겨 드리며, 그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리베 ~ 제가 걸어온 이 은혜의 집 사역의 길을 이어갈 리베는 일주일에 3일은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어 아직은 전적으로 은혜의 집 사역에 전념할 수 없지만 조금씩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하면서 일을 익히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익숙한 환경이지만 성실하고 자상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명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귀한 지도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늘 겸손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은혜 유치원은 비록 소수의 어린이들이 모이지만 함께 모여 공부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이 기쁨이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집 꼬맹이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아침 6시 졸린 눈을 억지로 뜨고 기쁘게 학교에 따라 가는 것을 볼때면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재미있어 하며 여러 학습재료들과 도구들을 사용하여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친구와 어울려 함께 놀기도하고 운동도 하면서 원생들이 여러면에서 눈에 띄는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원생들과 유치원을 책임지고 운영할 좋은 교사도 보내주시길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GGP 교단과 협력사역 및 순다족 사역자 돕기 ~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살롬 교회 담임목사님이 되신 나단 목사님의 위임식이 7월 26일 주일에 있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한 목양을 잘 감당하시며, 겸하여 대학교 교수로서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GGP 교단 산하 니아스섬과 술라웨시 토라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함께 건축에 동참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헌신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속되어 지고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순다족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과 소수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돕고 양육하는 이삭목사님 부부와 협력하여 그들의 복음전파 사역이 계속되며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한 부분을 감당하며 돕고 있습니다.

비자 ~

그동안 5년짜리 거주 비자를 받아 연장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비자를 연장 신청하면서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하였고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며칠 전 이민국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무제한 거주 비자증을 무사히 받았고 앞으로는 비자를 연장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수고를 하지 않고도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3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자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또한 비자대행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수속을 진행했기에 정부에 내는 비자 비용외에 과도한 비자 연장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비용을 절약하여 사역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리베를 훈련시켜 그가 제 비자 연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수속을 진행하기에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더욱 감사히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피 50주년 행사~

지난 6월(6/9~6/12)에 인도네시아 지피 선교 50주년 감사 예배 및 축하 행사를 자카르타에서 진행했습니다. 50여년 전에 이곳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시던 이은무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과 동료 및 후배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교의 주체이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남아 있는 선교의 과업도 주님 의지하고 충성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쁘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건기가 지속되며 지하수가 바닥이 나고 물이 나오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동의 다른 지역은 소낙비도 쏟아지곤 하는데 은혜의 집 부근은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도 1~2분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다 멎곤 하네요... 지난 주일 아침 결국 지하수가 바닥나고 물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이 목욕을 하지 못하자 근처에 회교 사원에 가서 목욕을 해도 되냐고 묻더군요. ㅎㅎ 아침부터 별로 좋은 풍경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보자 이야기한 후 앞집에서 물을 길어다 일단 사용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시고 또 근처에 물들을 모아 주셔서 비가 오기까지 우리가 물이 부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음식문제, 화장실 문제, 목욕하고 빨래등...수십명의 아이들이 물이 부족할 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본인들의 삶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그 고통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라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어려움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물길을 내시고 필요한 물을 이곳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길, 또한 속히 이곳에도 비를 내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모든 상황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마다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수종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여전히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저의 길을 지켜주신 귀한 동역자님들께 저의 한없는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았고 더욱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승리의 삶 누리소서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열방과 세계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

아 멘 !!!

2026 년 8 월 27 일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화수 드림.

기도제목 :

1. 김화수 선교사 개인의 삶과 사역의 현장속에서 매일 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충성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2. 은혜의 집 아이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며, 모든 면에 진보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만나며 그의 사랑을 경험토록, 그리스도를 위한 일군으로 세워지도록.

대학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마헤르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아름답게 빛으시사 주님 나라위하여 사용해 주소서.
3. 비를 내려 주시고, 물길을 열어 주시어 은혜의 집 식구들이 물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지 않고 주의 은혜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4. 비자 연장수속이 마무리되고 무제한 거주 비자증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과 사역을 하는데 비자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졌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법인재단이 비자 스폰서가 되어 비자를 받았는데 5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법인체 연장 수속이 늦어져 지금 연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재단 연장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법인체 연장이 잘 되고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5. 은혜 유치원에 주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풍성히 임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원생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6. 건축중인 GGP 교단 산하 2 개의 교회들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성도들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건축에 참여하며, 건축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도록